

“광주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서둘러야”

호남권역 전문병원 조선대병원 선정 후 행정절차로 설립 지연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광주시·의료계 소극적 대응에 어려움

사스, 메르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광주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관리지원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각종 행정절차로 지연되고 있는데, 감염내과 등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되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역시 광주시와 지역 의료계의 소극적 대응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에 응급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 치료 병상은 전남대학교병원 7개, 조선대학교병원 5개 등 12개에 불과하다. 조선대학교병원에 36개 응급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면 일반 환자와 중환자용 격리 병상, 수술실, 검사실 등 각종 시설을 활용해 신종 감염병과 고위험 감염 환자 등을 진단·치료하고 광주, 전남, 전북지역 공공·민간 감염병 대응 인력 등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행정절차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2년까지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와 조선대병원이 권역 전문병원 선정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 교육부 부지 사용 승인, 설계 심의·입찰 등 각종 행정절차를 밟느라 2년이 넘는 시간을 소모한 탓이다. 광주시와 조선대병원측은 올 상반기 내 설계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엔 설계와 공사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업 예산이 선정 당시 298억원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또 한번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감염병 관리 지원단 설치도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광주시 등 6곳 뿐이다.

감염병 지원단은 국·시비 3억원씩 총 6억원을 투입해 운영하며, 감염내과 의사 등 10명 안팎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 등을 한다. 광주시는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지역 의료계의 비협조 등으로 지원단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조기에 설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의료 인력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지역 내 의료 전문가들과 협의해 올 상반기 내 지원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출입자 발열검사하는 요양병원 11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면회자 등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겨울대파 30억 상당 198ha 추가 시장 격리

재배농가 경영안정 도모

전남도는 최근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대파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가 30억원 상당의 198ha를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겨울대파

총 359ha(1만3000t) 61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로 시장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겨울대파 미출하량 일부를 포전에서 정리하고 시장 출하량을 줄여 실질적 가격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시장격리는 지난해 광역지자

체 최초로 확보한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비를 활용했다.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장격리 기준보전액은 300평당 151만2000원이다. 이번 시장격리 지원 능력은 차기 영농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서둘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

고, 2월 말까지 시장격리를 마무리해 겨울대파 가격 회복 및 농가 경영안정에 가지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대책은 도가 중심이 돼 주산지 시군, 농협, 농업인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며 “향후에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민생경제 살리자” 구내식당 문 닫고 꽃 사주기 전개

시, 코로나 감염증 콜센터 확대
도, 화훼농가 농어촌기금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돕기에 나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소비 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판매, 숙박, 음식, 유통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시청 주변 음식점을 돕기 위해 청년 구내식당 운영을 12-18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으며, 시 산하 기관에도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시는 또 학교 졸업식 등 취소로 매출이 줄어든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 등도 전개할 방침이다.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돕기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장미 1단(10송이) 가격이 도매시장 기준 5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1만3000원 대비 60% 이상 하락했다. 안개꽃 도매가도 1단에 7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2만원과 비교하면 60% 이상 떨어졌다. 졸업식 등 2월에 예정된 각종 행사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줄줄이 취소돼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이에 전남도 22개 시·군과 함께 도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다음달까지 매주 금요일을 ‘플러워 데이’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이 꽃 사주기 운동을 펼친다. 도청 로비 운전도출엔 매주 금요일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이동장터도 개설한다.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과 함께 꽃을 선물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벌인다. 또 도내 공공기관과 주요 기관에는 ‘테이블 1플러워’ 운동, 생일 등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등 화훼농가 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이와 함께 화훼농가에 자체 ‘농어촌 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신종코로나 영향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조기 폐장

53일간 5만9천명 찾았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조기 폐장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야외 스케이트장은 폐장 예정일보다 5일 앞당겨 지난 4일 문을 닫았다. 지난해 12월 14일 개장한 스케이트장에는 53일간 모두 5만8937명이 찾았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112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여름 개최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추억을 떠올리는 수리·담이

마스크트 포토존, 인공지능·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을 체험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체험관 등을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따뜻한 겨울날씨가 이어지고 신종 코로나까지 확산하면서 운영 기간 후반엔 이용객이 급감했다. 스케이트장 이용객은 2017~2018년 겨울 47일간 6만7017명, 2018~2019년 겨울 48일간 5만3180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각각 1426명, 1108명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SWEET 2020’ 6월로 연기

전국노래자랑 합평편 제작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에 따른 행사 취소·연기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3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 ‘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20’을 6월로 연기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행사 기간을 6월 3일부터 5일

까지로 조정했다. 올해 15번째를 맞는 행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RTA),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전시회다. 오는 22일 녹화 예정이었던 KBS 전국노래자랑 합평군편도 무기한 연기됐다. 제작진은 앞으로 상황에 맞춰 일정 등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